

3/17/19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 장 1-15 절

- (막 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 (막 1: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 (막 1: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 (막 1:4)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 (막 1: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 (막 1: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 (막 1:7)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 (막 1: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 (막 1:9)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 (막 1:10)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절판주** 요 1:32
- (막 1:1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 (막 1: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 (막 1:13)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 (막 1: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 (막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 복음서가 있습니다.

사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마가는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누가는 역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인자로 오신 예수를, 요한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4 명의 저자를 통해 서로 다른 측면에서 본 예수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 복음서 중 우리는 오늘부터 마가가 쓴 마가 복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마가 복음은 사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오리지날' 복음서라고 할 만큼 복음의 엑기스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 요한도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 복음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마가 복음은 문체가 간결하고 사 복음서 중 가장 짧아 일명 '선교 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이유들로 선교시 쪽 복음으로 많이 나누어 줍니다.

저자 마가는 본래 유대 이름이 요한이지만 로마 이름 마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역으로 큰 부를 이루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외삼촌 바나바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지라 사도를 포함한 제자들과 교류하며 지냈고 따라서 마가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부유해서 복음 전도에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례로 저택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 일만에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뒤 예수님의 말씀대로 120 문도들이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렇지라도 마가 자신은 초기에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삼촌인 바나바의 소개로 바울과 함께 1 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한 때 바울과의 사이가 틀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도 위태로울 것 같자 두르고 있던 흠이불을 던져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오랜 연단 기간을 거쳐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모두 능통했던 그는 유대인이라 헬라어를 잘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통역자로 베드로를 따라 다녔고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화해한 후 병약한 몸으로 감옥에 갇혀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말년에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에 가서 선교 활동에 전념하며 헌신된 봉사자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믿음이 약했고 나약한 겁쟁이였던 마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랑스런 승리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약한 자를 택하시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인생들을 참된 성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는 로마인들에게 구원의 횃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가 복음도 바로 이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러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섬김의 종으로 온 예수를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가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고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언급없이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언급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거창한 족보를 소개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했기에 예수님이 유다의 왕 다윗의 자손이라는 족보가 필요했습니다.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했기에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이라는 족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섬기고 고난 받으러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려 했기에 거창한 족보 같은 것은 필요없었습니다.

족보있는 종을 보셨는지요?

마가복음 1 장 1 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막 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시작이라고 번역된 원어 '아르케'는 창세기 1 장 1 절에서 쓰여진 '엔 아르케'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근원 곧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기원이고 복음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근본. 본체시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는 간결하고 단호한 문장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셨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εὐαγγέλιον)은 '좋은'이라는 뜻의 유(εὖ)와 '사자, 천사, 목사, 전령,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의 명사 앙겔로스(ἄγγελος)가 합쳐진 말로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가져옴'을 의미합니다.

마가는 복음, 유앙겔리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일한 기쁜 소식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5)

왜 그럴까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착각을 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양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가져다 놓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너희가 죽어있다'(골 3:3)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 3: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마가는 1 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를 선포한 뒤 그 말을 세례 요한을 통해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마가 자신의 말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선포된 예언이 실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1: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막 1: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것은 마가가 이사야 40 장 3 절과 말라기 3 장 1 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와 말라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사 40: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야의 도래를 위한 준비 사역을 합니다.

(막 1:4)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막 1: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심령을 돌이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회개 사역을 합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에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라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물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회심을 하도록 하는 것일 뿐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막 1: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 부유한 자였지만 가난한 자가 되어 단순하고 소박하며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복으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었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을 먹었습니다.

그는 오직 회개의 세례와 임박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해 그의 모든 육적인 욕망을 절제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 들었으며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막 1:7)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막 1: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것이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유대인들은 신발 끈을 푸는 일을 아주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종들이 하였는데 종들 가운데도 유대인 종들에게는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고 이방인 종들에게만 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실 성령 세례를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 세례 곧 물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는 형식적인 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실 성령 세례를 준비하게 하는 예비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죄를 용서받게 하여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성령 세례로 인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물세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막 1:9)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회개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 의아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회개를 회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짊어질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전받는 안수식이었습니다.

(막 1:10)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막 1:1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막 1: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막 1:13)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 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늘 쇼가 펼쳐집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오셨으며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음성을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전도 사역장에 내 보내시면서 그의 신분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막 1: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막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 갔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서는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12 제자를 택해 같이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으며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늘 궁전을 마다하고 천하고 천한 이땅에 내려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고 아주 험악한 죄인들이나 지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벌거벗은채
죽으셔야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친히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나요?

바로 우리, 아니 나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인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야만 하는 나를
금홀히 여기셔서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복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살리려 아들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를
살리려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카톨릭에서나 지내는 것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결국 승리하셔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 기간을 특별히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